

오순절 후 스무 번째 주일 예배

THE WORSHIP SERVICE OF 20TH SUNDAY AFTER PENTECOST

주후 2020년 10월 18일 오전 10시

인도: 김재우 장로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박대웅 목사
*찬 송 Hymn	383 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새 336)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42 번 마태복음(Matthew) 5 장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555 장 “세번 아멘”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 도 Prayer of Intercession		김재우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신(Deut) <b>31:6-8</b> , 마(Matt) <b>14:22-33</b>	고민영 집사
설 교 Sermon	“ <b>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적 거리두기</b> ” <b>(Social Distancing And Spiritual Distancing)</b>	박대웅 목사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봉 헌 Offerings	(특송: 윤희준 집사, 반주: 고혜정 집사)	다같이
*송 영 Doxology	353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새 317)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박대웅 목사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439 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새 386)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박대웅 목사

\*표가 있는 순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각자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찌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했고, 근신하여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공의를 오해하며 왜곡시켜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보다 세상과 더 가까웠던 우리의 죄성을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깊이 자리잡은 거짓과 위선과 교만을 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성 있는 삶과 신실한 믿음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벧전 4:7-8)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개역개정 신 31:6)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afraid or terrified because of them, for the LORD your God goes with you; he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NIV Deuteronomy 31:6)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10/18 (주일)	10/19 (월)	10/20 (화)	10/21 (수)	10/22 (목)	10/23 (금)	10/24 (토)
본문	왕상21	왕상22	왕하1	왕하2	왕하3	왕하4	왕하5
	살전4	살전5	살후1	살후2	살후3	딤펴1	딤펴2
	단3	단4	단5	단6	단7	단8	단9
	시107	시108,109	시110,111	시112,113	시114,115	시116	시117,118

수/요/ 성/경/공/부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성경공부 (10/21 오후7:30)	“바울의 선교여행” (행13:46-49) - 김강석 장로
토요 새벽기도회 (10/24 오전6:30)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약3:13-18)-문일호 장로

지난 주일(10/11) 말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히 12:18-29)

올해 (2020년) 우리 교회의 신앙의 주제인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교회 (Live in Peace & Be Holy)”는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화평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거룩함)가 어떠해야 하는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에 더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며? 이 말씀의 실천을 위해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1)첫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히12:25) 즉, 우리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며,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기 위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더욱 경청해야 하겠습니다. 2)둘째,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히12:28상). 즉,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3)셋째,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히12:28하). 여기에서의 감사는 경외감과 두려움으로 버무려진 감사로서, 이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체된 기쁨만 남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